

'주민 삶의 질 향상'

이항로 진안군수, 민선6기 2년 성과·계획 밝혀



이항로 진안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730일간의 성과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꼽았다.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아 29일 브리핑실을 찾은 이 군수는 "지난 2년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치적과 실적 쌓기 행정을 과감히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행복과 진안 발전을 위한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한 것은 수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터덕거렸던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한 것. 이 군수는 "50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2018년 10월이면 진안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진안군 전 지역을 물론 무주, 장수까지 추가요금 없이 1000원으로 농촌배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연결되지 않는 노선은 무료로 1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만 명이 찾아 3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홍삼축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군수는 "진안홍삼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안군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비리고 안물고 안태우는 3NO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제조제 안쓰는 우렁이농법을 도입한 이유는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연속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친환경 경영 부문) 수상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군수는 "100% 진안홍삼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진안산 농산물 판매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공약사업 추진율은 8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수는 "공약사업 중 8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에 98% 이상 완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선6기 후반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진안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전복, 총칭권 150만 주민의 생명수인 용담호와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비점오염원으로 물살을 얇고 있는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사할을 걸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점오염원이 우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을 통해 용담호로 유입되어 대량 녹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8년 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언진, 신지천 인공습지에 이어 인구와 농경지가 가장 많은 진안읍 운산리 진안천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9억 원(국비 39억, 기금 32억, 군비 8억)을 투입해 운산 인공습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와 기금 40% 등 보조재원으로 사업비의 90%를 충당할 수 있어 군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용담호 수질 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향후 추가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정자천, 구랑천 등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용담호를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 즉 내륙 최대의 습지형 호소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귀농·귀촌하고 싶은 무주 만든다

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만전

무주군은 신규(전원)마을, 체재형 가족실업농장 귀농·귀촌인 거주기반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50가구 규모)은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80억 3천 7백만 원(국비 16억 4천만 원, 군비 63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공사를 진행한다. 분양은 8월부터 시작한다.

또 귀농·귀촌인들의 거주 공간 확보와 농촌 실업농장의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머물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 임시 거주공간을 2개 소 더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진(1)과 덕지(1), 죽장마을(2)에 총 4개

소가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군은 안성 공정지구 신규 마을 바로 옆 부지에 체재형 가족실업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총 13억 1천 5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비 귀농인 거주공간 10동과 실업농장이 조성된다.

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담당 과장은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돼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용득 장수군수, 국가예산 확보 분주

국회 방문 현안사업 국비 요청

최용득 장수군수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심의처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의(완주·진안·무주·장수)를 만나 장수~장계간 및 일실~정수간 국도 건설사업(1,686억원)에 대한 국비를 요청했다.

또한 말산업 특구지정(100억원), 장

수 레드푸드 융복합지구 조성(60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수군은 93개 신규사업 발굴하고 55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예산확보 노력 중에 있으며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방문 또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개장

내달 1일~8월 31일까지

무주군 반디랜드 내 야외 물놀이장(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이 7월 1일 개장(8월31일)을 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외의 우천 시나 위험요소 발생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다.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767.36㎡) 1일 이용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20인 이상 단체 성인 6,400원, 청소년 5,600원, 4세~초등학생 4,800원)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립의 경우 이용료의 30%

감면) 성인 풀과 유아 풀을 비롯해 남녀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관상용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다.

군 시설사업소 반디휴양 담당 김경복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고 현장에는 수상인명구조원 2명, 안전요원과 응급처치 요원 등 8명을 배치한다"며 "반디랜드 내 청소년야영장, 수련원, 통나무집 등 숙박시설 이용객들은 물론, 한여름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이용하고 가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상반기 정년퇴임식

장수군은 29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16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갖고 퇴임 공무원에게 정부포상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최용득 장수군수와 퇴임공직자 가족, 후배공무원 등은 송덕선 전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해 퇴직공무원 5명의 공직생활 마감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장수가 더욱더 행복하고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사방사업 조기 완공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우 등의 영향으로 산지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119곳 중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1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곳(사방법 7개소, 계류보전 2.0km, 산지사방 0.7ha)의 사방사업을 지난 28일 조기에 완공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완공한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 등을 차단하여 하류 저지대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시설들이다.

관계자는 "장마 및 태풍 발생시기인 우기에는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췌, 교통안전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교통관리계장 경위 김덕상은 무주교육지원청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20명을 상대로 어린이통학버스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발생 어린이 사고 사례를 들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 교통법규를 설명하고 차량 관계자의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김 계장은 통학버스를 운전자포함 보호 탑승원을 포함하여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수칙을 강조하고,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학생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췌, 정신질환자 이해 현장경찰 대상 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에서는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현장경찰(파출소, 형사, 교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보건복지센터 원장 정종성은 "정신장애인의 위기개입"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윤종섭 서장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등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범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일자리·삶의 질·먹거리 중점



완주비전 정책포럼 개최 후반기 군정 역점시책 제시

북원구원, 조석현 농업정책팀장이 주요발제자로 나섰다.

주요 패널로는 김현숙 전북대학교 수, 황태규 우석대학교, 안대성 안주로컬푸드협동조합대표 등이 전문가로 참석했다.

완주군은 민선 6기 후반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완주 공공경제프로젝트와 농토피아 완주 먹거리 2020 전략이 후반기 군정 역점시책으로 제시됐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완전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과 식품복지, 안전먹거리, 농식품 6차산업화, 음식관광 등 완주군 전체 식품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는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이어 완주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트레상스 완주' 정책은 문화여가의 활성화와 관계회복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행복수명 증진'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전국 으뜸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선6

기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의 최상의 가치는 군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 2년간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 씌어 달려와 테크노밸리 1단계 100%분양, 일자리대상 전국 1위, 교통복지 1번지 완주,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 소비시장 확대, 정책어르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심혈, 소통정책 등의 성과는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어져 이제 완주군은 '완전한 완주, 으뜸도시 완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함께해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박 군수는 "앞으로 완주군은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트레상스 완주', 모두가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 등 3대 핵심정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테크노밸리 2단계 조기착공, LH 삼봉지구 등 15만 자족도시의 기틀마련과 완주 공공경제 프로젝트, 식품, 먹거리 정책, 청년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문화예술도시 산태 등 으뜸관광도시 완주 등 완주군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학술적 자문 받아

2차 회의 전문가 초청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산 40-1번지)에 위치한 청자가마터 4차 문화재 조사에 따른 2차 학술 자문회의가 29일 오후 2시 도통리 중평마을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자문회의는 지난 15일 1차 자문회의에 이은 2차 자문회의로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항로 진안군수와 국립전주박물관 이

주원 관장직무대리, 김숙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장 등 전라북도와 진안군,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사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성락 교수(목포대·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와 진화수 전 국립전주박물관장(문화재위원), 김영원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4차 문화재 조사는 국립전주박물관의 자체 학술발굴조사사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마 1기는

처음에 벽돌로 축조되었다가, 후에 가마 인적으로 진흙과 갑발(청자를 구울 때 덮는 용기)을 이용해 다시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통리 중평 가마터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이행하는 가마의 변화양상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가 잘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추가 발굴조사와 국가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